

1인 가구 공약 통했다... SSM, 퀵커머스·소용량으로 성장세

〈기업형슈퍼마켓〉

소비 트렌드 변화가 만든 기회
대형마트 감소 속 SSM 점포 3.9% ↑
SSM 매출 증가율 시장 규모비 높아
애플리케이션 통해 장보기·쇼핑 증가

대형마트가 줄줄이 폐점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과거와 달리 성장세를 보이는 모양새다. 퀵 배송 서비스, 소용량 제품 공급 등이 주 성장 요인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을 중심으로 대형마트가 속속들이 폐점되고 있는 가운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기업형슈퍼마켓(SSM)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SSM은 대형마트와 동네슈퍼마켓의 중간 형태의 기업형 슈퍼마켓을 의미한다. 주로 대형 유통 기업이 운영하며, 중소규모 매장에서 다양한 생필품과 신



롯데슈퍼 그랑그로서리 도곡점 매장 전경.

/롯데슈퍼

선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 SSM은 대형마트에 밀려 위기를 맞았다. 대형마트와 전통적인 동네슈퍼마켓 사이에서 뚜렷한 차별점을 갖지 못한 점, 대형마트에 비해 약한 상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여기에 편의점이 근거리 쇼핑 채널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자, SSM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그랬던 SSM이 다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 자료에 따르면, SSM의 전년 동

기 대비 매출 증감률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각각 ▲9.1% ▲2.5%로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3.7% 증가로 반등했다. 특히, 2024년 1분기에는 매출 증감률이 8%에 달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마트와 비교했을 때도 SSM의 성장은 유의미하다. SSM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5.6%, 대형마트는 같은 기간 0.7% 증가했다. 마트 전체 오프라인 시장 매출 비중이 53.3%인데 반해, SSM 비중은 2.6%로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SSM의 매출 증가율은 시장 규모 대비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흐름은 점포 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9월 기준, SSM 점포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 확대된 반면, 대형마트는 1.1% 감소했다.

실제 대형마트는 지방을 중심으로 점포 폐점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월 부산 서면점을 영업 종료했다. 이어 5월에 서울 목동점, 7월에 대전 서대전점과 경기도 안양점을 폐점했다. 이마트 역시 지난 4월 천안 펜타포트점, 지난 5월 상봉점을 닫았다.

업계에 따르면, SSM의 성장 배경으로 퀵커머스 서비스가 지목된다. GS리

테일은 우리동네G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퀵커머스 서비스를 실행 중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이마트 역시 지난해 8월, 지난 6월 각각 배달의민족 내 '장보기·쇼핑'에 입점하면서 퀵커머스 시장 공략 가속화에 나섰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SSM의 소용량 제품 판매가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혼자 사는 만큼 대량으로 사면 음식을 둘 곳도 없고, 다음식물 쓰레기가 돼 부담스럽다"며 "간단하게 소용량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마트를 자주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비 트렌드에 맞춰 업계도 SSM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롯데슈퍼는 최근 롯데슈퍼 도곡점을 SSM 최초 식료품 전문 매장인 '그랑그로서리 도곡점'으로 리뉴얼 오픈했다. 이 매장은 5,000개 이상의 식료품 상품을 구비해 일반 롯데슈퍼 점포보다 약 30% 더 많은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매장 전환에 대해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근거리 위치한 식료품점을 방문해 필요한 물품을 그때그때 소량으로 구매하는 소비 패턴이 확산되는 배경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투자라는 말을 붙이지만

우리는 좋아하는 일에 열심일 때도
투자라는 말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깊이 좋아하는 것만큼
당신을 성장시키는 건 없으니까요

당신의 삶도
당신의 자산도 성장하는 투자

N2, 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당신의 투자 문화가 되다

R 소비자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2024년 소비자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증권부문 3년 연속 1위

N2,

NH투자증권

“집행 불가능 법안에 유감 농업·재정 악화우려 확대”

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비판
농산물 수급 불안·가격 폭등 경고
본회의 통과시 거부권 행사 시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국회 상임위 통과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들 법안이 농업의 미래를 없애는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4개 법안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 보험법(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대해대책법) 개정안이다. 지난 21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4개 법안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하고자 했지만 자정을 앞두고 단독 의결됐다”며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며 농업의 미래를 없애는 법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낱을 정부가 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가격(공정가격) 아래로 내려갈 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송 장관은 “특히, 양곡가격안정제도는 평년 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라며 “낱을 쌀도 정부가 의무 매입해야 하고, 심지어 공정 가격으로 사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안법에 대해선, 특정 품목 생산 율입 현상이 생겨 농산물 수급

이 불안해지고 일부 농산물 가격은 폭등할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송 장관은 재해 보험법과 재해 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모든 보험이 할증과 할인을 기본 원리로 하는데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효율을 동일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할증 면제를 받는 농가 때문에 피해가 없는 농가까지 보험료를 다 상승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력화시키게 되고 정부 재정을 지속불가능한 상태로 만든다”고 말했다.

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전부 또는 일부),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 적용 등이 포함된 것이 골자다.

향후 4개법안의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할지 묻는 질문에 송 장관은 “불행하게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똑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